

[보도자료]

스탠다드차타드가 후원하는 한국 신진 현대 미술 작가 전시회,  
**‘코리안 아이: 환상적인 일상:(KOREAN EYE: FANTASTIC ORDINARY)’ 개최**

- 스탠다드차타드, 한국 현대 미술을 세계에 알리는 가교 역할을 통해 새로운 브랜드 약속인 ‘히어포굿 (Here for good)’ 을 널리 알려
- 한국 현대 미술의 유산을 만들어나갈 국제적 규모의 미술전, 명성 높은 사치 갤러리 (Saatchi Gallery) 에서도 개최

2010년 5월 25일, 서울 – 스탠다드차타드가 후원하는 한국 신진 현대 미술 작가 전시회인 ‘코리안 아이: 환상적인 일상 (Korean Eye: Fantastic Ordinary)’ 전시회가 오는 7월부터 개최된다. 한국현대미술의 정점을 해외에 알리기 위한 국제적인 프로젝트인 코리안 아이 전시회는 7월 3일 런던의 사치 갤러리를 시작으로 싱가포르, 서울 3개국에 걸쳐 진행된다.

스탠다드차타드 후원으로 지난 해 처음 ‘코리안 아이: 문 제너레이션 (Korean Eye: Moon Generation)’이 개최됐으며, 런던의 사치 갤러리에서 25만 명 이상의 관람객을 유치한 바 있다. 지난 해의 성공에 힘입어 ‘코리안 아이: 환상적인 일상’을 주제로 올해 두 번째 전시회가 열린다.

올해 개최되는 ‘코리안 아이: 환상적인 일상’에는 11명의 신진 및 기성 한국 작가가 선별됐으며 일상을 반영한 3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될 예정이다. 11명의 작가는 배준성, 홍영인, 배찬효, 권오상, 지용호, 김동유, 이림, 김현수, 전준호, 박은영, 신미경 작가로, 그 중 전준호 작가는 지난 해 전시회에도 참여한 바 있다. 또한 참가 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하는 책자인 “코리안 아이: 한국 현대 (Korean Eye: Contemporary Korean Art)’ 도 7월 5일 런던의 사치 갤러리에서 개최되는 코리안 아이 전시회에서 첫 선을 보인다.

코리안 아이의 주 후원사인 스탠다드차타드는 신진 한국 작가들을 세계 무대에 소개하기 위한 가교 역할을 통해 지속적으로 한국을 해외에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다.

팀밀러(Tim Miller) 스탠다드차타드 그룹 이사 및 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SC제일은행) 이사회 의장은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코리안 아이를 후원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 올해 전시될 작품에서 보여지는 다양한 재능과 표현기법은 매우 높은 수준이며, 한국의 현대 미술 작가를 지원하고 스탠다드차타드의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 고 말했다. 또한 “스탠다드차타드는 브랜드 약속인 “Here for good”의 실현을 위해 스탠다드차타드가 진출한 지역사회의 장기적인 발전에 지속적으로 공헌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코리안 아이의 창립자인 데이비드 시클리티라 (David Ciclitira) 는 “지난 전시회에 대한 뜨거운 성원 이후 사치 갤러리가 코리안 아이 전시회를 초청해 다시 한번 함께 할 수 있게 돼 기쁘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재능 있는 작가들을 발굴해, 이번 전시 전시회에 대해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뜨거운 호응이 예상된다” 고 소감을 말했다.

나이젤 허스트 (Nigel Hurst) 사치 갤러리의 대표이사는 “2009년 ‘코리안 아이’의 성공적 전시 이후, 사치 갤러리가 올해에도 코리안 아이 전시회에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하게 돼 기쁘다. 올해 전시회에도 작년에 이어 참신하고 매력적인 작품들이 선보이게 될 것이다” 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에 전시될 작품은 국제적인 큐레이터 이사회를 통해 선별됐다. 다양한 국적의 큐레이터로 구성된 이사회에는 한아트 갤러리 (Hanart Gallery) 디렉터 및 큐레이터인 송중창(Tsong-zung Chang), 영국 왕실예술대학(Royal College of Arts)의 명예 펠로우인 세레네라 시클리티라 (Serenella Ciclitira), 미술 컨설턴트이자 큐레이터인 아멜리 본 웬델 (Amelie von Wedel), 필립스 드 퓨리 (Phillips de Pury Company)의 디렉터인 로드만 프리맥 (Rodman Primack), 큐레이터/미술 사학자인 이지윤과 지난 해 코리안 아이 큐레이터로 활약한 이대형이 함께 했다.

더불어 올해 '코리안 아이: 환상적인 일상'은 연례 전시회를 지속적으로 펼치고 매년 참여 도시를 확대해 나가며 2012년 런던 올림픽에 문화적 기여를 하기 위한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

**코리안 아이 “판타스틱 오디너리” 전시회 일정**

- 7월 3일- 7월 18일: 사치 갤러리, 런던
- 9월 24일- 10월 10일: 싱가포르 (장소 미정)
- 11월 1일- 11월 30일: SC제일은행 제일지점, 서울
- 11월 1일- 11월 15일: 서울 (장소 미정)
- 11월 16일- 11월 30일: 한국국제교류재단, 서울

**매체 문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금융지주 홍보팀**

주희선 팀장  
02-3702-3523/ 010-4703-3443  
[HeeSun.Joo@scfhc.co.kr](mailto:HeeSun.Joo@scfhc.co.kr)

김미란 과장  
02-3700-5921/ 010-8884-6225  
[MirRan.MRK.Kim@scfhc.co.kr](mailto:MirRan.MRK.Kim@scfhc.co.kr)

**코리안 아이- 영국**

Frances Quigley  
[f.quigley@parallemediagroup.com](mailto:f.quigley@parallemediagroup.com)  
+44 7879 447 340

Rory Renwick  
[r.renwick@parallemediagroup.com](mailto:r.renwick@parallemediagroup.com)  
+44 207 225 2000/ +44 7980 306 004

Sarah Baptiste  
Email: [s.baptiste@parallemediagroup.com](mailto:s.baptiste@parallemediagroup.com)  
Tel: +44 207 225 2000  
Tel: +44 75 9090 1838

**코리안 아이 (Korean Eye)**

코리안 아이는 최고 수준의 한국현대미술을 알리기 위해 데이비드 시클리티라에 의해 설립된 국제적인 프로젝트이다. 코리안 아이는 한국현대미술을 위한 장기적인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한국미술이 해외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미술이라는 신형 미술시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www.KoreanEye.org](http://www.KoreanEye.org)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데이비드 시클리티라 (David Ciclitira)**

데이비드 시클리티라는 한국 최대의 골프 토너먼트인 발렌타인 챔피언십(Ballantine's Championship)을 시작한 국제적인 스포츠 및 이벤트 기업, 패러렐 미디어 그룹(Parallel Media Group plc. ("PMG"))의 회장이다.

데이비드 회장은 영국왕립예술대학(the Royal College of Art)의 명예 펠로우(Honorary Fellow of the Royal College of Art)이다. 지난 20년간 데이비드 회장과 그의 아내 세레빌라는 패러렐 프라이즈(the Parallel Prize)와 세레빌라 시클리티라 조각 장학금(the Serenella Ciclitira Scholarship for Sculpture)의 기금을 조성해왔다.

데이비드 회장은 유수의 한국작가 및 갤러리들을 섭외하여 한국현대미술전 ‘문 제너레이션’의 첫 전시회를 기획했다. ‘코리안 아이: 문 제너레이션’은 2009년 사치 갤러리에서 16주 동안 개최되었을 때 25만 명 이상을 유치한 바 있다.

#### 큐레이터 이사회

**존슨 창 송중 (Johnson CHANG Tsong-zung)**은 큐레이터이며 중국 항저우에 있는 중국 미술 아카데미 (China Art Academy)의 객원 교수이자 홍콩의 Hanart TZ Gallery 디렉터를 겸임하고 있다. 창은 1980년대부터 중국과 해외에서 중국 현대 미술의 전시회 큐레이트 작업을 활발히 수행했다. 최근 큐레이트 작업을 한 작품으로는 2008년 광저우 트리엔날레 (The 3rd Guangzhou Triennial), "영적인 공간: 래커의 한 측면 (Spiritual Space: A Dimension in Lacquer)" (후베이 지방 미술 박물관, 2009년 Hubei Province Museum of Art)이 있다. 현재 중국과 인도 교류작업인 "서구 천국에서부터" (From the West Heaven) (2010년 상해 비엔날레의 위성 프로그램)가 있다.

**세레네라 시클리티라 (Serenella Ciclitira)**는 영국 더블린의 트리니티 대학 (Trinity College)에서 미술사 우등 학사 학위를 수여 받았다. 세레네라는 코리안 아이의 공동 창립자이며 코리안 아이의 큐레이터 이사회를 이끌고 있다. 그녀는 전세계 각지의 작가와 갤러리와 함께 작업을 해왔다. 1990년부터 영국 왕실예술대학(Royal College of Arts)의 명예 펠로우 (Honorary Fellow) 이다. 회화 부문에서 파라렐 프라이즈 (Parallel Prize) 와 조각 부문에서 세레벨라 시클리티라 장학금 (Serenella Ciclitira Scholarship)을 수여하고 있다. 그 중 한 명의 수상자는 터너 프라이즈 (Turner Prize)의 후보로 선정되었으며 3명은 명성 있는 ‘제어우드 조각 프라이즈’ (Jerwood Sculpture Prize)를 수상하게 되었다.

**이대형**은 2007년 콜롬비아 대학교의 아시아 태평양 개발 소사이어티 (Asia-Pacific Development Society)의 디렉터를 역임한 바 있다. 현재 큐레이팅 회사인 Hzone의 대표이며 2008년 3월 시작한 BlueDot-Asia Project를 이끌고 있다. 서울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 8년 동안 한국 뿐만 아니라 동경, 런던, 베이징에서 한국 작가들을 알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대형은 첫 코리안 아이 전시회의 큐레이터였으며 올해에도 코리안 아이 큐레이터 중 한 명으로 활약하게 될 것이다. 올해부터 코리안 아이는 한국 현대 미술을 전세계에 선보이는 비영리 기관으로 운영될 것이다.

**이지윤**은 런던을 기반으로 독립적인 큐레이터이자, 비평가 및 연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지윤은 숨 프로젝트 (SUUM Contemporary Art Project)의 디렉터이며 아시아와 유럽간 문화적 교류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지윤의 전시 프로젝트로는 2005년 코펜하겐의 샤폰텐 보르그 (Charlottenborg Exhibition Hall)에 전시된 Seoul: Until Now!, 2006년 부산 비엔날레에 공동 큐레이트를 한 A Tale of Two Cities: Busan-Seoul, 런던의 아시아 하우스 (Asia House)에 전시된 Through the Looking Glass: Korean Contemporary Art, 2007년 런던 한국 문화원 (Korean Culture Centre)에 전시된 Good Morning Mr. Paik Nam June, 2008년 리버풀 비엔날레에 전시된 Fantasy Studio, A Foundation 과 2009년 베니스 비엔날레를 위해 경남 미술 박물관을 통한 부차적 행사에 공동 큐레이팅을 한 AttaKim: ON-AIR가 있다.

**로드만 프리맥은 (Rodman Primack)** 런던에서 필립스 드 퓨리 (Phillips de Pury & Company) 의 회장직을 마치고 뉴욕으로 돌아와 컨템포리 아트(Contemporary Art)의 디렉터이자 시니어 스페셜리스트 (Director and Senior Specialist)로 부임했다. 로드만은 2004년 필립스 드 퓨리에서 근무하기 시작했으며 그 전에는 L.A의 가고시안 갤러리 (Gagosian Gallery)의 디렉터를 역임했으며 뉴욕의 크리스티스 (Christie's) 의 남미 미술의 헤드 스페셜리스트를 역임했다. 로드만은 필립스 드 퓨리의 서부해안 개발을 담당했으며 그 후 2006년 런던으로 옮겨와 이사로 부임하며 런던 비즈니스 개발을 총괄했다. 로드만은 계속해서 주요 전후 및 현대 미술 수집가와 일하고 있으며 동시에 국제적인 기관, 큐레이터, 작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아멜리 본 웬델 (Amelie von Wedel)** 은 미술 사학자이자 큐레이터, 미술 컨설턴트로 런던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2006년 런던, 뉴욕, 베이징에서 웬델 파인 아트 (Wedel Fine Art) 를 설립했다. 웬델 파인 아트는 모던 및 현대 미술을 특화하고 있으며 개인 고객 및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아멜리 본 웬델은 다양한 큐레이터 작업 및 출판 작업에 참여했으며 최근 중국 미술서 (China Art Book)에 자문을 제공했다.



**스탠다드차타드 (Standard Chartered)**

**스탠다드차타드 -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지역의 선두은행**

스탠다드차타드 PLC는 선도적인 국제 은행으로서 런던 주식시장과 홍콩 주식시장에 동시 상장 되어 있다. 세계적으로 가장 역동적인 시장에서 15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으며 이익과 수익 중 90% 이상이 아시아, 아프리카 및 중동지역에서 창출된다. 이러한 지역에 집중적인 영업을 하고 고객과 심층적인 관계 구축에 매진한 결과 스탠다드차타드는 최근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다.

스탠다드차타드 그룹은 현재 전세계적으로 70여 개 마켓에 1,700여 개 지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75,000명의 직원에게 도전적이고도 흥미로운 국제 커리어 기회를 제공한다. 장기간에 걸쳐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를 구축하고 세계적으로 기업지배구조, 기업사회책임, 환경 보호 및 직원 다양성에 대한 글로벌 스탠더드를 준수하는 은행으로 널리 신뢰를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스탠다드차타드의 유산과 가치는 브랜드 약속인 'Here for good' (히어 포 굿)을 통해 표현되고 있다.

**한국스탠다드차타드금융지주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금융지주 주식회사는 402개의 영업점을 보유한 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SC 제일은행)을 비롯해, 스탠다드차타드펀드서비스(SC펀드서비스), 스탠다드차타드캐피탈 (SC캐피탈), 한국스탠다드차타드상호저축은행(SC상호저축은행), 스탠다드차타드증권(SC증권) 등, 5개 자회사 등을 총괄한다.

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SC제일은행)은 한국스탠다드차타드금융지주 주식회사가 보유한 자산 중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한다.

80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SC제일은행은 1929년 조선저축은행으로 출범하여 1958년 제일은행으로 은행명을 변경한 이후 기업금융에 강점을 가진 은행으로 활동해 왔다.

스탠다드차타드의 인수 이후, 2005년 9월 12일 새롭게 태어난 SC제일은행은 성공적인 통합 작업을 통해 꾸준한 성장을 해왔다. SC제일은행은 '성장을 위한 한국 최고의 금융 파트너'라는 비전을 가지고 '고객제일주의'에 따라 기업금융 고객에게는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국내 기업과 해외 시장 간의 가교 역할을 할 것이며, 소매금융 고객에게는 혁신적인 상품 및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켜 나갈 것이다. 또한 SC제일은행은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며 지역사회의 진정한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자세한 정보는 [www.scfirstbank.com](http://www.scfirstbank.com)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스폰서 명단**

스탠다드차타드	페리에 주에 (Perrier Jouet)
패러렐 미디어 그룹 (Parallel Media Group)	서울시
한국국제교류재단	중앙일보
UPS	CVS
대한항공	SKIRA